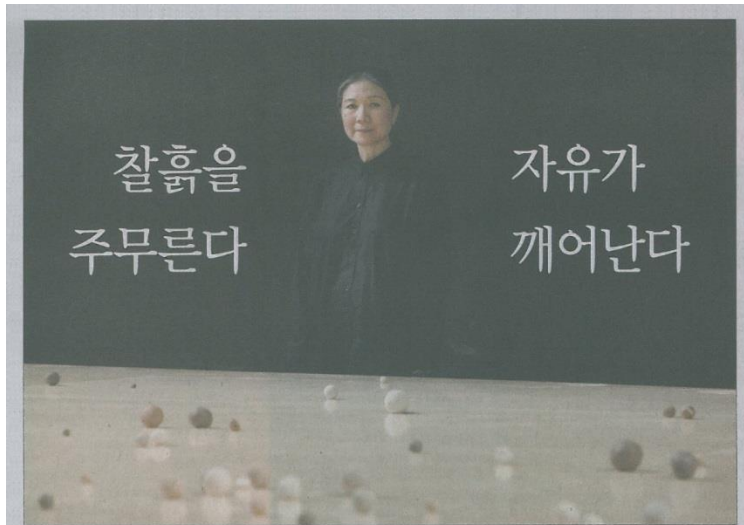


설치미술가 김수자, 국립현대미술관서 4년 만에 개인전 '마음의 기하학'

August 2, 2016 | 심혜리 기자



'보따리' 작업으로 잘 알려진 현대미술 작가 김수자가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마음의 기하학' 앞에서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설치미술가 김수자, 국립현대미술관서 4년 만에 개인전 '마음의 기하학'

흙은 인간과 가장 밀접했지만 현대문명에 가려 인간에게서 멀어진 '자연'이다. 보통사람들의 손을 떠난 흙은 이제 예술가들의 가장 미술적인 재료가 됐다.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설치미술가 김수자는 4년 만에 국내에서 여는 전시회에서 흙의 원초적 촉감을 관람객들에게 들려준다. 김 작가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 '마음의 기하학'을 열고 있다.

자신의 몸을 '바늘' 삼아 세상을 꿰매고, 보따리로 감싸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9점의 새 작품을 선보인다.

표제작인 '마음의 기하학'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완성시키는 퍼포먼스 설치다.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관람객은 찰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지름 19m의 대형 테이블 위에 놓도록 요청받는다. 찰흙을 양손으로 짓주무르고 누르며 굴리는 동안 흙을 만지며 느끼는 근원적인 촉감을 관람객을 비인상적 감각으로 이끌게 된다. 관람객이 의도하는 대로 쉽게 변형되는 찰흙이 갖는 유연성은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극도의 자유로움의 감각이다. 실내엔 작가가 직접 녹음한 여러 '소리'들이 낮게 흐른다. 찰흙을 빚는 행위와 감각에 몰입하다 보면 좀처럼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갖고 있는 허(虛)의 공간에 관심이 있어 클레이(찰흙) 작업을 해보고 싶었죠. 어린 시절에 만졌던 이후에 흙이라는 것을 내 손에 닿아서 만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찰흙이 두 손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물질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관객과 나누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만들어놓고 간 동그란 모양의 찰흙 덩어리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면, 이는 또 다른 평면적 작품으로 전환된다. 작가는 이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몸의 기하학' 작품앞에서면작가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한 요가 매트와 마주하게 된다. 요가 매트는 우리 몸이 기하학적 움직임을 쏟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프레임'이다. 그 움직임은 오랜 시간을 통해 요가 매트라는 물질 위에 흔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요가를 하는 동안 작가의 신체적 움직임과 중력을 비가시적 차원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작가는 "이브 클라인의 보타페인팅 이후 예술에서 신체성이 어떻게 또 다른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세계 곳곳을 무대로 진행 중인 비디오 작품 시리즈 '실의 궤적'(Thread Routes)'의 신작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시리즈는 세계 각지의 직조문화를 그곳의 자연과 건축 속에 담으며 인류학의 원형적 미학을 좇는 영상 작품이다. 신작인 이번 다섯번째 작품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나바호족과 호피족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직물을 짜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촬영했다. 작품에는 내러티브가 없다. '시각적인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묘하게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이미지들이 직물을 짜는 행위와 어우러진다. 이는 '세계'라는 직물을 짜고 깎으며 풀어나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인류학적 탐구에도 맞닿아 있다.

작가는 그동안의 작품세계와는 다른 구성성을 강조한 작품도 내놓았다. '연역적 오브제'란 제목의 작품은 석고로 본뜬 작가의 양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로 맞닿아 있는 양손의 엄지와 검지엔 환극과 다른 극을 연결해 있고 일체화해온 작가의 철학이 반영돼 있다. 내년 2월5일까지. (02)3701-9500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기준과 달리 작품의 구성성을 강조한 김수자의 '연역적 오브제'.